

신흥 유학시장 태국에 '노크'

전북대, 태국에서 열린 교육박람회 참여 대학 홍보 나서... 풀라롱껀 대학과 협력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주 태국 한국교육원(원장 김주연)과 협력해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협력대학인 전주대, 우석대, 군산대와 함께 현지 시간인 지난 10일과 11일 양일 간 태국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OCSC International Education Expo 2018'에 참여했다.

첫 날인 10일 태국 인사혁신처장관이 태국유학 엑스포 현장과 한국부스를 방문해 참가국 대표들과 직접 인사를 나누는 등 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제15회 교육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전북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컨소시엄, 부산대, 이화여대를 비롯한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프랑스 등 세계 약 25개국 378개 대학 및 교육 기관에 약 3만여 명의 태국 중고등학생을 비롯한 대학생, 학부모, 현지 교사들의 높은 참여 속에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전북대 홍보 부스를 방문한 태국 학생과 학부모들은 기계, 전기, 화학, 의학전문대학 등 세부적인 전공분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등 한국유학 교육 환경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김주연 태국한국교육원 원장은 "태국은 제 2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4만여명에 이를 정도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큰 나라이며, 태국의 중산층 학생들의 한국유학에 대한 관심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발 빠른 대처가 필요



전북대학교가 주 태국 한국교육원과 협력해 태국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OCSC International Education Expo 2018'에 참여했다.

하다"고 전했다.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추진위원장이인 전북대학교 윤명숙 국제협력본부장은 "태국과 같은 신규 지역에 진출하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구성하고 태국 내 우수 대학과의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통해 대학 내 우수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것이 거점국립대학교를 비롯한 지방 대학들의 발전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전북대는 태국의 가장 우수한 대학으로 꼽히는 '풀라롱껀 대학교'와 지난 2009년에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오프캠퍼스 필리핀코리아 등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세부 의견을 논의하며 우수한 유학생 유치 및 국제교육 협력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정읍장학숙, 가을 맞아 단합대회·봉사활동 벌여

정읍장학숙(이하 장학숙)은 지난 10일에 입학생과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을맞이 환경정화 봉사활동과 단합대회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입학생 간 화합과 소속감을 높이고, 학업으로 인해 지친 심신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먼저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길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장학숙과 석수역 일대의 무단으로 버려진 각종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환경정화 활동을 마친 후에는 삼성산 들레깅을 걸으며 학업, 취업, 취미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입학생 간의 화합과 소속감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입학생은 "내가 사는 동네를 직접 깨끗하게 청소해서 뿌듯하고, 시험 기간을 보내고 많이 지쳐있었는데 자연을 만끽하고 나니 스트레스가 해소되었다"고 말했다.

장학숙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한층 더 건강한 장학숙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하는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입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해소와 유대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은=김대환 기자



남원 동통동 삼삼동, 경로당 어르신 대상 삼계탕 대접

남원시 동통동의 식당 삼삼동(대표 왕홍석)은 12일 삼삼동에서 관내 경로당 어르신 30여명에게 누룽지 삼계탕으로 든든한 점심식사를 제공하였다.

왕홍석 대표는 지난 10월말 동통동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맞춤형복지 실현을 위해 재능기부 및 착한가게 협약을 맺고 기력이 약해지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매월 1회 관내 어르신들을 모시고 정기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기로 했다.

식사를 제공받은 어르신은 "지난여를 무더위가 너무 기승을 부려 힘들어서 기력이 없었는데 고기를 맛있게 먹었다"고 하신 분이 있는가하면 "입맛이 없어 기운이 없던 참에 든든한 점심을 대접 받고 나니 기운이 절로 생긴다"며 환한 웃음을 지으시는 어르신도 계셨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지사면 관기마을 '지사 그려그려축제' 성황리 열려

임실군 지사면 관기마을 주민자치회(회장 전홍목)가 주최한 '2018 지사 그려그려축제'가 지난 11일 마을 주민과 출향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사 그려그려축제는 우리 농산물과 농촌마을 살리기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이 주인공이 되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주민자치 축제로서, 특히 관기마을 대표 농산물인 감을 비롯한 다양한 농산물을 알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이번 축제는 관기마을 풍물단 공연을 시작으로, 색소폰연주, 마을 전통놀이마당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관기마을 주민들과 함께 작은 농촌마을에 건강한 활력을 불어 넣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전홍목 회장은 "올해로 4회째 맞이하는 지사 그려그려축제에 함께 해주신 마을주민과 출향민께 감사드립니다"며, "오늘 축제를 발판으로 농촌마을을 살리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은 면장은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그 어떤 축제보다 훈훈하고 풍성한 축제였다"며, "지역축제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실=전홍영 기자



현대차 전북본부, 구이면 미치마을서 봉사활동 전개

현대자동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남원오)는 12일 1사촌 자매결연 마을인 전북 원주군 구이면 소재 미치마을에서 농촌지원금 전달식과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임직원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현대자동차 전북지역본부는 농촌지원금 등 사회공헌기금 300만원을 전달하고, 농번기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남원오 전북지역본부장은 "농업은 우리 삶의 기본 터전이고 어려울 때 기업과 농민이 하나 되어 극복해 나갈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참가소감을 밝혔다.

현대자동차 전북지역본부와 미치마을은 지난 2006년 1사촌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14년동안 꾸준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중이다. /원주=이종복 기자



장수 의암 주농개배 전국 탁구대회 성료

장수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장수군 탁구협회(회장 김남기)가 주관한 제18회 장수 의암 주농개배 전국 탁구대회가 지난 10일부터 11까지 장수군민체육센터에서 전국 탁구동호인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단체전 4개부, 개인전 4개부로 경기가 진행돼 회원들이 그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맘껏 펼쳤으며 특히 여자 실업 탁구단 3팀(장수군청,금천구청,포항시체육회), 남자 실업 탁구단 3팀(서울시청,인천시체육회,영도구청)이 참가한 초청경기에서 장수군청팀이 여성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남성단체전은 서울시청팀이 우승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재경임실향우회 정기총회·임실인의 밤 행사 개최

'제40차 재경임실군향우회 정기총회 및 임실인의 밤 행사'가 지난 10일 서울 미아동 빅토리아 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하여 신대용 임실군의회 의장, 한완수 전북도의회 부의장, 이근복 재경임실군향우회회장 등 많은 내외구민과 향우회원, 임실군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태방섭 사무처장 사회로 1부 행사에는 개회선언, 유공자 시상, 축사, 기념케익 컷팅으로 정기총회 행사를 진행했고, 2부 행사에는 고향에서 올라온 지역주민과 향우회원이 함께하는 화합행사로 이뤄졌다.

이근복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향우회원과 지역주민이 모처럼 한자리에 만나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고 고향발전과 재경임실군향우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민 군수는 축사를 통해 "임실군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은 향우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군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실=전홍영 기자

고창소방서장, 화재예방대비 노인복지시설 방문

박진선 고창소방서장은 12일 동절기가 도래됨에 따라 다수의 피난 약자가 생활하는 고창노인요양병원, 고창군노인요양원을 방문했다.

이 날 방문은 밀양세종병원 화재 발생을 계기로 관계자 경각심 고취를 위한 방문으로 동절기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을 유지관리, 소방시설 작동 유지상태 등 시설진단 확인, 관계인 소방안전관리 및 피난 약자에 대한 예방교육 등 대형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관심과 실천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박진선 고창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진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소방시설 점검 등 예방활동, 건물 밖으로 대피가 필요하나 요양원,요양병원에서는 이마저도 쉽지가 않아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상태를 파악, 자체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대형참사를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소방서, 이백면 전 세대에 기초소방시설 설치

남원소방서는 이백면 행복복지타운 준공식과 더불어 준공 기념품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이백면 전 세대에 설치한다.

이번 행사는 남원소방서와 평소 소방행정에 관심이 많은 이백면발전협의회와의 협조로 이루어졌으며, 이백면 1,095세대 모두에 소화기(3.3kg)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각각 1대씩 설치하게 된다. 조유주 소방서장은 "별단위 전 세대에 보급하는 사례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다른 지역뿐 아니라 전국으로도 확산되어 국민 모두 화재 없는 마을에서 살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진장소방서, 무주읍 추동마을 한기수씨에게 소화기 전달

무진장소방서(서장 김일선)는 12일 소화기를 사용해 주택화재를 초기 진화하여 재산과 인명피해를 경감시킨 무주읍 추동마을 한기수(67) 씨에게 소방서장 표창장과 함께 소화기 및 감지기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보상 수혜자인 한기수(67)씨는 "11월 1일 오후 6시경 주방에서 냄비 소리와 함께 연기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여 가족과 이웃을 대피시키고 집안에 소화기를 이용하여 자체진화에 성공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